

## 아파트 디스토피아를 다시 생각하기 :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아파트 표상의 해방적 전유와 거주하기의 상상력

유인혁\*

### 〈차 례〉

1. 들어가며
2. 아파트의 비장소성을 해방적으로 전유하기 : 『서있는 여자』의 경우
3. 아파트의 상품성과 협상하기 :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의 경우
4. 나가며

###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박완서 소설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아파트 디스토피아’ 담론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이다. 여기서 ‘아파트 디스토피아’란 한국 사회의 부정적 아파트 담론을 의미한다. 아파

---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C2A02093521)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연구교수)

트에 대한 비판적 재현들은 아파트 공화국의 위력을 약화시키기보다는 강화·재생산하는 측면이 있었다. 아파트의 막강한 위력에 대한 재현이 오히려 대안적·대항적 삶의 상상력을 위축시켰기 때문이다.

그런데 박완서는 단순히 아파트에 의해 억압·소외당하는 인물을 그리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부정적 속성을 전유하거나 창의적으로 재 활용하는 인물들을 다뤘다. 박완서의 『서있는 여자』에서 아파트의 비장소 및 장소상실의 특성은, 성차별적인 공동체에서 벗어나려는 여성에게 유리한 환경적 조건이 되었다. 한편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에서 아파트는 인간적 유대의 장소이기 보다는 상품성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부동산이었다. 그러나 아파트는 경제적 자립을 추구하는 인물에게 필수적인 자원으로 기능했다. 여기서 박완서 소설의 인물들은 주어진 환경에 수동적으로 순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거주하기’를 통해 공간의 의미와 기능을 변화시키는 주체라고 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박완서는 아파트를 단순히 비인간적이거나 억압적인 공간이 아니라, 지배문화와의 협상이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그렸다. 그럼으로써 단순히 아파트 디스토피아를 재생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서사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주제어: 아파트 디스토피아, 아파트, 박완서, 『서있는 여자』,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거주하기, 비장소, 장소 상실, 장소성

## 1. 들어가며

이 연구의 목적은 박완서 소설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아파트 디스토피아’ 담론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이다. 특히 박완서의 『서있는 여자』와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를 리처드 세넷의 ‘거주하기’ 개념을 통해 다시 읽음으로써, 두 소설이 한국 ‘아파트 공화국’의 부정적 측면을 반영하거나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보다는, 아파트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과 협상하거나 혹은 그것을 전유하는 행위자들을 묘사하고 있음을 논증하겠다.

이 글에서 말하는 ‘아파트 디스토피아’란, 아파트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을 의미한다. 아파트는 현재 대한민국 인구의 과반이 머무는 거주유형으로서<sup>1)</sup>, 그야말로 주거공간의 우세종이다. 이러한 아파트는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문화적 삶의 핵심과 맞닿아 있다. 많은 학술, 언론, 그리고 대중적인 글쓰기와 말하기들은 아파트가 획일적·무개성적인 환경과 경관을 형성하며, 유의미한 삶의 장소이기보다는 투기와 신분상승의 수단이고, 사회적 유대감을 해체하고 인간을 소외시키는 현장임을 지적하고 있다. 요컨대 아파트는 현대 도시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장소상실의 공간이며, 자본주의적인 허위의식과 욕망의 집결지로 표상되는 경향이 있다.

문학 역시 이러한 담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글쓰기 중 하나다. 박철수에 따르면 1960년대 이후의 대중소설은 아파트의 “소시민적 욕망과 집단적 이기주의의 현장 그리고 소통의 부재와

---

1)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집계결과 통계표’에 따르면 전국 주택 총 18,811,627호 중 아파트는 11,948,544호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주택 총 3,068,494호 중 아파트는 1,818,214호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 통계청 홈페이지를 확인.  
([www.kostat.go.kr/board.es?mid=a10301020200&bid=203&act=view&list\\_no=419536](http://www.kostat.go.kr/board.es?mid=a10301020200&bid=203&act=view&list_no=419536); 2023년 6월 20일 접속)

공간적 자폐성” 등의 부정적 이미지를 (재)생산했다.<sup>2)</sup> 손종업 역시 한국문학에서 아파트가 중산층적인 욕망과 깊이 연관된 공간 이면서, “거기에 속하고 싶어 하면서 동시에 벗어나고 싶어”하는 이중성이 작동하는 곳으로 나타났음을 지적했다.<sup>3)</sup> 송은영에게 한국문학은 “1970년대 중반 이후 부동산 투기가 대중화되면서 중산층의 삶에서 일어난 변화와 사회적 효과(…), 윤리적 의식의 문제”를 폭넓게 지적하는 텍스트로 제시되었다.<sup>4)</sup> 이러한 언술들에 따르면 한국문학은 아파트가 개인적·사회적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장소가 아니라, 속박하며 황폐한 공간이라는 점을 고발하여 왔다.

그런데 이러한 ‘아파트 디스토피아’의 글쓰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호연관적인 이유에서 문제적이다. 첫째, 아파트 담론은 아파트의 부정성을 강조하지만, 그것은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주거공간의 우세종으로서의 지위를 위협하지 못한다. 박해천이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 자조적인 말투로 고백한 바에 따르면, 아파트는 “담론의 가상 세계에선 언제나 패배하지만 물질의 현실 세계에선 백전백승”이다.<sup>5)</sup> 이때 문학을 포함한 담론적 실천들의 효능은 포착하기 어려운 것이 된다. 둘째, ‘아파트 디스토피아’는 너무나 강력하고 ‘현실적’인 이미지를 생산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난 삶을 상상하거나 실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여겨진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일반적인 개인은 삶의 편의성, 신분상승의 욕망, 부의 축적이라 부를만한 것들을 포기

2) 박철수, 「대중소설에 나타난 아파트의 이미지 변화과정 연구」,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 21권 1호, 2005, p.189.

3) 손종업, 「우리 소설 속에 나타난 아파트 공간의 계보학」, 중앙어문학회, 『어문론집』 제47호, 2011, p. 261.

4) 송은영, 「중산층 되기, 부동산 투기, 사회적 공간의 위계 만들기」, 역사비평사, 『역사비평』 제139호, 2022, pp. 81-82.

5) 박해천, 『콘크리트 유토피아』, 자음과모음, 2011, p. 56.

할 수 있는가. 아파트가 ‘소시민적 욕망’의 기호라는 점이 뚜렷해 질수록, 그러한 욕망을 포기하거나 혹은 극복하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 글은 리처드 세넷의 ‘거주하기’의 개념을 통해 ‘아파트 디스토피아’의 표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리처드 세넷은 도시가 다만 건조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노력과 행위에 의해 천천히 만들어지는 공간으로 파악했다. 리처드 세넷에 따르면 도시의 건축, 행정, 경제적 전문가들은 물리적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도시적인 삶과 사회를 계획 및 조종하고자 한다. 그러나 세넷이 각각 빌(ville)과 시테(cite)라고 명명한 도시의 물리적 형태와 ‘정신적 도시’는 “이음매 없는 매끈한 연결”로 붙어 있지 않다.<sup>6)</sup> 사람들은 물리적 환경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지만, 동시에 주어진 체계를 종종 오인하며, 협상을 통해, 혹은 무단으로 변경을 가한다. 요컨대 도시는 지어진 것인 동시에 거주(dwelling)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사람들은 개인적·집합적 삶을 이어나감으로써, 외부로부터 주어진 공간의 제약을 우회하거나 혹은 재구성할 수 있다. 여기서 거주하기란 생활을 통해 새롭게 공간을 (재)생산하는 실천을 의미한다.

이 글은 거주하기의 양상을 보여주는 문학적 사례로서 박완서의 소설을 주목한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우선 박완서는 한국 도시공간의 문제를 세밀하게 묘사한 작가다. 박완서의 소설은 유년기 및 외상적 기억의 기반으로서의 장소 문제<sup>7)</sup>, 근대적·자본주의적 도시화 과정에 따른 장소상실 및 인간 소외의 문제<sup>8)</sup>

6) 리처드 세넷, 김병화 옮김, 『짓기와 거주하기』, 김영사, 2020, p. 10.

7) 이평전, 「한국전쟁의 기억과 장소 연구-박완서 소설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회, 『한민족어문학』 제65집, 2013, pp. 869-895.

8) 송명희·박영해, 「박완서의 자전적 근대 체험과 토포필리아-『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20집, 2003, pp. 43-70; 송은영, 「문밖의식으로 바라본 도

등을 상세히 재현했다. 박완서는 다만 추상적인 광역의 도시공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장소들을 형상화한 작가이기도 했다. 정혜경에 따르면 박완서 문학에서 구체적인 주거공간은 “등단작 『나목』에서부터 시작하여 이후 소설에서 ‘도시, 가족, 젠더’의 문제를 수렴”<sup>9)</sup>하는 요소로 기능했다. 즉 박완서 문학에 나타난 ‘아파트 공화국’은, 한국의 경제성장과 도시화가 개인, 가족, 사회의 스케일(scale)에서 어떠한 물질적·정신적 변화를 일으켰는지 살펴볼 수 있는 문학지리 및 문화지리의 텍스트로서 중요성을 갖는다.

둘째로, 박완서는 현실과 적극적으로 협상(negotiation)하는 인물을 다뤘다. 이것은 박완서가 타협적(compromising)인 인물들을 재현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박완서의 소설에는 대개 현실과 갈등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나 혁신을 추구하지 않는 인물들이 자주 등장했다. 『나목』의 이경,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와 『그 남자네 집』에 등장하는 1인칭 서술자, 『도시의 흉년』의 지수연, 『살아 있는 날의 시작』의 청희, 『서있는 여자』의 연지,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의 차문경 등은 가부장제, 자본주의, 도시화과정에 대하여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그러한 물질적·사회적 환경에 대한 저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박완서의 주인공들은 현실에 대해 충분히 비판적이지 않거나, 혹은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협조적인 인물로 여겨지기도 했다.<sup>10)</sup>

시화-박완서 문학과 서울-, 한국여성문학학회, 『여성문학연구』 제25집, 2011, p. 112.

9) 정혜경, 「1970년대 박완서 장편소설에 나타난 ‘양육집’ 표상-『휘청거리는 오후』와 『도시의 흉년』을 중심으로-, 대중서사학회, 『대중서사연구』 제25호, 2011, p. 72.

10) 특히 박완서의 소설은 자본주의에 대한 이중적 의식을 동시에 드러내는 텍스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송은영은 박완서 소설이 자본주의 논리를 비판하면서도 ‘은밀한 공모의식’을 내재한 텍스트의 성격을

타협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이러한 인물들은 ‘소시민성’이라고 하는 절반은 사회학적이고 나머지 절반은 가치판단적인 용어의 사례가 된다. 그러나 주체는 언제나 일종의 협상, 갈등, 그리고 거래의 과정 속에 있는 존재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자면, 주체는 사회적·물리적 환경에 다만 예속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억압적인 환경 속에서 생활하면서도, 최대한의 이득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종합하자면, 이 글의 가설은 박완서 소설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도시공간의 사회문화적 의미, 또한 도시공간과 개인이 맺고 있는 심오한 관계를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글의 결론을 앞당겨 말하자면, 박완서 소설에서도 아파트는 한국의 도시화과정의 압축적 표상으로서, 디스토피아적인 심상지리를 형상화했다. 그러나 박완서는 단순히 아파트를 괴물로, 그리고 아파트의 주민들을 수동적이거나 한계에 봉착한 예속자로 그리지 않았다. 오히려 박완서 소설의 인물들은 아파트 부정적 속성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전유(appropriation)하거나 창의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sup>11)</sup> 앞으로 이어지는 두 장을 통해

---

갖고 있음을 지적했다. (송은영, 앞의 글, p. 126) 유인혁은 박완서가 자본주의의 핵심 원리로서 ‘창조적 파괴’의 양상을 서사화하는 작가로 평가한 바 있다. (유인혁, 「상실인가, 해방인가? -박완서 소설 『그 남자네 집』에 나타난 기억과 장소의 재구조화 양상』, 구보학회, 『구보학보』 제31집, 2022)

- 11) 이러한 관점은 아파트의 젠더지리(gender geography) 해석에 있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아파트의 젠더는 중요하게 다뤄졌다. 이를테면 전봉관은 ‘복부인’으로 대표되는 아파트 투기의 젠더화가 여성혐오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지적했다.(전봉관, 「주거의 투기화, 투기의 여성화-1970~1980년대 한국 서사에 나타난 복부인의 형상화 양상 연구」, 대중서사학회, 『대중서사연구』 제25권 4호, 2019, p. 356) 김은하는 ‘복부인’, ‘교육엄마’ 등이 “모성의 부도덕성, 외설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김은하, 「아파트 공화국과 시기심의 민주주의: 박완서의 개발독재기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39집, 한국여성문학학회, 2016, p. 51) 이때 두 글은 공통적으로 아파트와 여성이 부정

이러한 양상을 자세히 살펴보겠다.

## 2. 아파트의 비장소성을 해방적으로 전유하기:

### 『서있는 여자』의 경우

이 장에서는 박완서의 『서있는 여자』에서 아파트의 ‘비인간적’ 공간으로서의 속성이 해방적으로 전유되는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여기서 해방적인 전유란, 아파트의 억압적인 성격들이, 특히 여성인물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건으로 활용되는 양상을 가리킨다.

아파트는 비장소(non-place), 혹은 장소상실(placelessness)의 구체적인 사례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마르크 오제는 인류학적 차원에서 ‘장소’와 ‘비장소’를 구분했다. 그에 따르면 장소는 인류학적 지식의 근간이 되는 곳으로서,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거기서 일하고 거기를 지키고 그 장점을 표시하고 그 경계를 감시하는 토착민이 점유하는” 곳이다. 그곳은 “공간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징적인 구성”이며, 정체성과 관계, 역사의 중핵을 이루는 곳이다.<sup>12)</sup> 반대로 비장소는 근대성과 초근대성이 생산한 곳으로, “정체성과 관련되지 않고 관계적이지도 않으며 역사적인 것으로 정의될 수 없는 공간”이다. 그곳은 행위자의 정체성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종합병원, 대형 매장, 자동판매기, 공중전화부스, 공항의 라운지와 같은 곳이다. 인간이 장소에서 “유기적인 사회성”을 경험한다면, 비장소에서는 “고독한 개인성, 일시성, 임시성, 찰

적인 방식으로 결합되었다는 전제를 보여준다. 본 연구는 박완서가 아파트의 젠더화를 재생산하면서도, 그것을 대안적이며 저항적인 방식으로 활용했음을 주목한다.

12) 마르크 오제, 이윤영·이상길 옮김, 『비장소』, 아카넷, 2017, pp. 59-69.



나성” 등을 경험하게 된다.<sup>13)</sup>

한편 에드워드 렐프는 지리학적 차원에서 장소성(placeness)과 장소상실(placelessness)을 구분했다.<sup>14)</sup> 에드워드 렐프에 따르면 충분한 삶은 유의미한 장소를 통해 이루어진다. 심지어 진정한 장소감은 개인과 공동체의 정체성의 원천이기도 하다. 그런데 현대도시는 규격화되고 대량생산된 경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장소에 대한 경험을 피상적으로 축소시키며, 나아가 장소감(sense of place)을 느끼기 어렵게 만든다.

아파트는 이러한 비판적 담론이 겨냥하는 구체적 공간으로 보인다. 김정남은 최인호의 「타인의 방」에 나타난 아파트를 분석하는 가운데, “아파트 몇 동 몇 호로 구분된 공간”이 ‘고립의 경험’을 낳는 ‘개별적인 공간들’의 느슨한 연결로서 ‘비장소’의 특징을 가진다고 주장했다.<sup>15)</sup> 즉 아파트는 ‘연결성’이 부재한 곳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분리되고 공동체를 형성할 수 없는 고독한 개인의 공간에 다름 아니다. 또한 아파트는 “획일성, 익명성, 핵가족화, 인간관계의 공백 및 근린 의식이 없는 군거적 고립 공간”<sup>16)</sup>, 혹은 개인의 삶을 “안락한 채로 상투화되고, 반복되고, 비슷한 장소들로 연결”하는 공간<sup>17)</sup>으로 곧잘 재현됐다. 이는 한국문학에서 아파트의 경관이 대체로 깊이 없음을 만들어내는 “평면성과 획일성”<sup>18)</sup>의

13) 마르크 오제, 앞의 글, 2017, pp. 97-115.

14) 렐프에게 장소성이란 진정성 있는 삶의 조건으로서 참된 장소감과 연결되며, 그러한 진정성의 상실은 무장소성 혹은 장소상실로서 경험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옮김,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pp. 145-245 참조

15) 김정남, 「도시 주거공간의 비장소성과 단자적 의식의 문제」, 한민족문화학회, 『한민족문화연구』 제65집, 2019, p. 197.

16) 이평전, 「아파트 건축과 공간 질서의 생성과 파괴」,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17권 3호, 2013, p. 130.

17) 손중업, 앞의 글, p. 243.

18) 이양숙, 「도시공간의 계토화와 불안의 정동—박완서의 아파트 소설을 중

공간이자 “장소상실의 균질적 의미망”<sup>19)</sup>으로 나타났음을 뜻한다.

비장소와 장소상실은 이론적 배경과 활용양상의 미묘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을 가진 어휘다. 두 개념어는 모두 현대적 공간이 유의미한 장소를 파괴하고 있으며, 그 결과 개인은 공동체적인 경험으로부터 유리되어 고독해졌다고 암시한다.

문제는 이러한 진단이 유효하지 않다는 데 있지 않다. 물론 몇몇 사례들은 아파트가 비장소, 혹은 장소상실의 비인간적 공간이라는 점에 대하여 강력한 반례를 제시한다.<sup>20)</sup> 그러나 여기서는 일단 아파트가 공동체적 장소로서의 특성을 갖는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아파트가 파괴한 장소성이 일종의 이득(benefit)으로 기능하는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 자세히 말해, 아파트 공간에서 ‘공동체’가 파괴되었다는 점이 전략적 도구로 활용되는 지점을 조명하겠다. 이것은 아파트 디스토피아의 부정적인 표상이 해방적·긍정적인 방식으로 재맥락화 되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을 위한 이론적 토대는 제인 제이콥스와 리처드 셰넌의 도시성의 성찰로부터 가져오고자 한다. 제인 제이콥스와 리

심으로, 국어국문학회, 『국어국문학』 제195집, 2021, p. 295.

19) 정미선, 「1970-80년대 주거의 문화사와 아파트-스케이프의 다중적 로컬리티」,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로컬리티 인문학』 제18집, 2017, p. 113.

20) 이인규는 『안녕, 둔촌주공아파트』를 통해서 재개발을 앞둔 아파트 단지가 향수와 장소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이인규, 『안녕, 둔촌 주공아파트1』, 마을에숨어, 2013) 임준하에 따르면 “2013년부터 시작된 『안녕, 둔촌주공아파트』 프로젝트는 한 거주자가 재건축을 앞둔 평범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장소애착을 기록화 작업으로 표출하면서 시작된 대표적인 사례다.”(임준하, 「아파트 키즈의 아파트 단지에 대한 장소애착과 기억: 둔촌 주공아파트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p. 3); 한편 정미숙은 박완서 소설이 아파트를 “익명성의 표상이기보다 이웃과 더불어 자신을 성찰해 나가야 할 공유의 공간, ‘장소’라는 인식 전환”을 촉구하는 텍스트로 다시 읽기도 하였다.(정미숙, 「박완서 소설과 아파트 표상의 문학사회학」, 현대문학이론학회, 『현대문학이론연구』 제49호, 2012, p. 307)

처드 세넷은 모두 대도시에서 공동체란 유토피아적인 환상이라고 주장했다. 공동체(community)는 대개 근린(neighbor)에 거주하는 동질적인 집단을 상징하는 경향이 있다. 요컨대 전통적인 의미에서 공동체란, 특정한 장소에 모여 살고있는 비슷비슷한 사람들로 의미화 된다.

그러나 제인 제이콥스가 보기에 대都市는 “정의상 낯선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현대도시에서는 “집 근처에도 낯선 사람들로 가득하다.”<sup>21)</sup> 따라서 대도시에서 적절한 거리감은 굉장히 중요하다. 도시인들은 이웃과 유익하고 흥미로운 접촉을 하고 싶지만 동시에 사생활을 보호하고 싶기도 하다. 이때 타인 사이의 적절한 거리는 원만한 관계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이러한 생각에 따르면, 이웃들과 어울리며 마치 친족과 같은 단란함(togetherness)을 추구하는 것은 허황할뿐더러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한 이상은 종종 계급적 타자를 동네에서 몰아내고 동질적인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으스스한 ‘도시 속의 섬’인 빗장 공동체(gated community)를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리처드 세넷 역시 도시를 낯선 사람들이 서로 마주치는 공간으로 파악했다. 그는 도시의 활력과 생산성이 다양성과 복잡성에 기초한다고 믿었다. 그는 도시인이 이질적인 하위문화 집단을 배척함으로써가 아니라, 서로 적절한 거리감을 둔 채 공존하는 방법을 익힘으로써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때 구성원 간의 ‘피상적인 관계’는 공동체의 건강함을 해치는 악덕이 아니라, 오히려 친족(kin) 아닌 타자와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으로 인식됐다.<sup>22)</sup>

여기서 제인 제이콥스와 리처드 세넷은 마르크 오제와 에드워드

21) 제인 제이콥스, 유강은 옮김,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 그린비, 2010, p. 54.

22) 리처드 세넷, 앞의 글, p. 211.

렐프와 공명하면서, 또한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 네 명의 사상가는 모두 르 코르뷔지에 식의 현대적 도시계획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다. 즉 현대도시가 “반듯한 설계의 결과, 대량생산”<sup>23)</sup>된 공간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것이 삶의 풍부한 의미와 경험을 앗아가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제이콥스와 세넷은 장소에 대한 향수를 드러내는 데 훨씬 조심스럽다. 그들은 장소가 공동체의 기억과 정체성, 연대의식의 거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타자와의 피상적 관계가 도시인의 예절(manners)이라고 말한다.

이 장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역설과 관련된 부분이다. 아파트는 분명 비장소, 그리고 장소상실의 공간일 수 있다. 그리하여 공동체의 유대감과 경험을 축소시키거나 심지어 불가능하게 만드는 공간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개인이 바로 그 공동체로부터 이탈하고 싶다면, 이러한 ‘장소 아닌 공간’은 일종의 유용함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에에 또, 옛날 옛적이 아니라 현대 허구도 오늘날, 최신식 아파트에 젊은 유부녀가 혼자 살고 있었는데, 왜 혼자 살고 있었느냐면 남편이 외국 유학 아니면 사우디 돈벌이를 갔겠더라. 유부녀는 허구헌 날 돈 쓰고 다니는 게 취민데 언젠적부터지 따라당기는 놈팽이가 생겼더라 이 말이야. (중략) 그날도 아파트 근방까지 놈팽이를 살살 달고 오다가 아슬아슬하게 따돌리고 헐레벌떡 승강기에 올라탔겠다. 타고 보니 놈팽이가 먼침 타고 있는거야. 도망을 치려는데 놈팽이가 벌써 승강기 문을 닫았겠다. 놈팽이는 벌써 더운 김을 뿜으면서 계집을 왈각 껴안았겠다. (중략) 그런데 놈팽이는 계집의 손목을 비틀고 반지를 뺐더라 지 뭐야. 반지를 뺐은 놈팽이는 즉석에서 이상한 안경을 꺼내 한 눈에 끼고 감정을 하더니 탁 내던지면서 계집의 따구를 칠씩 때리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걸작이지. 이년이 멀쩡한 도둑 하나 병

23) 르 코르뷔지에, 정성현 옮김, 『도시계획』, 동녘, 2007, p. 234.

신 만들 계집 아닌감. 어디 가서 가짜 다이아로 꼬리를 쳐 치길.<sup>24)</sup>

박완서의 『서있는 여자』는 막 결혼한 연지와 철민 부부의 이야기가 중심이다. 이야기의 초반부는 두 사람의 약혼식 준비 및 전개 과정이 박완서 특유의 세밀한 필치와 입담을 통해 전개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약혼식 하객으로 참가한 “잠바 차림의 구지레한 중노인”은 아파트에 입주한 신혼부부의 이야기를 꺼냈다. 이 에피소드는 아파트에 대한 부정적 관념의 스테레오타입을 재현하고 있다. 여기에는 특히 여성의 사치와 성적인 일탈 가능성과 중산층 라이프스타일의 허위의식이 암시되어 있다. 특히 흥미로운 부분은 아파트가 타인의 의도와 정체를 확인할 수 없는 익명의 공간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위 인용문에서 ‘놈팽이’는 유부녀의 몸을 노리고 접근하는 것처럼 등장했지만, 사실 결혼반지를 훔치려는 도둑이었다. 여기서 아파트는 누가 이웃인지 혹은 외부자인지 알 수 없는 사회적 공간으로서 공포와 불안을 자아낸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상은 『서있는 여자』의 주된 배경인 연지와 철민의 신혼집 ‘임대아파트’ 단지에서도 재연됐다. 이를테면 연지는 아파트 복도에서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문밖도 열린 밖은 아니었다. 계단이 있고 쓰레기통이 있고 땀 집의 문들이 있는 작은 통 속이었다. 통속에 달린 작은 창밖은 어느 틈에 깜깜한 밤이었다. 하늘엔 별 한 점도 없었다.”(168) 여기서 아파트 복도는 낯선 타자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고립감과 밀폐감이 강화되는 환경으로 등장했다.

이러한 재현 안에서 아파트는 비장소 및 장소상실의 전형적인 공간으로 출현하고 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이지만, 이것은 거기에 모여 사는 개인들이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아파

24) 박완서, 『서있는 여자』, 세계사, 2012, p. 57. 이후 면수만 표기.

트의 이웃들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익명의 존재들이며,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활을 노출하는 것이 불편하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의 특성상 밀접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흥미로운 것은 『서있는 여자』의 서사에서 이러한 아파트의 부정적 속성들이 연지와 철민 부부의 결혼생활이 파탄하는 원인과 비교적 무관하다는 사실이다. 요컨대 아파트가 온전한 공동체의 장소로서 기능하지 못한다는 점은 주인공을 괴롭히는 문제가 전혀 아니다. 연지의 입장에서 살펴볼 때, 문제는 정반대의 차원을 가지고 있다.

술상을 차리는 동안은 그래도 연지를 흘금흘금 쳐다도 보고 더러는 말도 시키고 미안한 시늉을 하며 관심을 보이던 남자들이 한상 반자 연지는 거들떠도 안 보고 저희끼리만 떠들었다. (중략) 상대방은 안중에도 없어 하는 존재를 드러내놓고 있기처럼 거북하고 쑥스러운 일도 없었다.

연지는 그녀의 몸을 가려줄 단 하나의 공간인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열한 평짜리 아파트 화장실은 욕조도 없이 샤워와 변기만 있는 비좁고 공기가 안 통하는 답답한 밀실이였다. (중략) 그녀는 뒤틀린 속을 가라앉히기 위해 뚜껑 덮은 변기를 의자 삼아 걸터앉았다. 이게 무슨 꼴이람. 소위 맨션 속에서 주부의 프라이버시가 겨우 변기 위에 달렸다니. (『서있는 여자』, 160-162)

위 인용문에서 우리는 공동체적 장소로서의 집이 연지에게는 억압과 소외의 의미를 띠고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연지는 “결혼하고 나서, 시아버지 장례 치른 일주일 간 말고는 주말마다 거의 거르지 않고” 찾아오는 철민의 친구들을 대접해야만 했다. 이 친구들은 “대학 동창”, “재수 학원 동기”, “군대 친구”, “사회 친구”, “동네 친구”, “서클 친구”들로 구성되어 있다. 즉 철민은 집에 친구들을 초대함으로써 자신의 공적·사회적 네트워크의 결속을 다지고 있었다.

그런데 철민의 사교활동은 연지를 소외시키는 일에 다름 아니다. 연지의 가사노동은 남편 철민과 그의 친구들이 향유하고 있는 단란한 시간을 지탱하고 있다. 그러나 연지는 “부엌데기로서의 소임”만 다할 뿐, 철민의 동성사회적 사교에 동참할 수 없다. 그래서 연지는 자신이 “상대방은 안중에도 없어 하는 존재”로 축소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즉 연지는 자신의 집에서 “몸둘 곳이 없었다”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연지가 가정경제의 주부양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훨씬 의미심장하다. 연지는 주중에는 노동을, 주일에는 남편의 사교를 위한 가사를 수행하고 있다. 그녀는 자본주의적 가부장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남성에게 기대되는 일을 수행하고 있지만, 남성에게 주어지는 보상을 얻을 수 없었다. 그래서 연지는 직업여성에게 필요한 “일요일의 완전한 휴식”을 상실하고, “하루를 산 게 아니라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절절했다.

여기서 연지의 수난은 공간적 맥락에서 볼 때 크게 두 가지 문제점에 의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연지에게는 자신을 재생산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근대사회에서 집은 치열한 공적 영역의 ‘전쟁’으로부터 해방된 사적 영역으로 분절된다. 요컨대 집은 바깥세상으로부터 자아와 사생활을 보호하는 울타리와 같다. 그러나 연지는 바깥세상에서 일하는 주체이면서, 울타리 안을 보호하고 유지할 책무를 함께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연지는 비-노동일에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남편 철민에게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했다. 이때 집은 순수한 재생산의 장소가 아니라, 새롭게 노동을 투여해야 하는 일터가 된다.

둘째, 연지에게는 장소가 일종의 억압이자 소외의 현장으로 기능한다. 집을 유의미한 기억과 경험의 장소로 파악하는 관점 기저에는, 여성을 “순결하고 성스러운 존재로, 집에 질서를 가져올 의무를 가진 가정의 천사로 구성”하려는 관념이 아로새겨져 있다.

요컨대 “주택과 가정은 가장 강력하게 젠더화된 공간적 장소”다.<sup>25)</sup> 이러한 젠더화된 심상지리는 연지가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을 방해한다. 연지는 바깥에서 “우리 잡지엔 결혼한 여자에게 맡길 만한 만만한 일거리가 없단 말야”라고 말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경험하며, 그녀 스스로는 가정생활에서 “남성우위를 깃잡지 않으면 동등해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남성 우위를 보호해줬을 때 오히려 편하”다는 의식을 내면화하고 있다. 이러한 “여자의 숙명”은 연지가 스스로 피착취자의 역할을 떠맡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정리하자면 연지의 고통은 장소성이 없는 공간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연지는 의미 있는 장소를 생산하라는 압력 때문에 고통스럽다. 달리 말하자면 연지의 문제는 그녀의 환경에 공동체적인 연결성이 없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연결성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의 부재가 문제를 만들어낸다. 압축적으로 말해, 연지에게는 사생활(privacy)의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다락방에서 2층으로 내려와서야 그 소리는 동물성의 소리라는 것에서 인간의 소리라는 걸로 범위가 좁혀졌다. 그때부터 그녀는 튀어 나올 듯이 울렁이는 가슴을 두 팔로 감싸면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아버지의 서재 앞에 어머니가 울고 서 있었다. 어머니는 어린애처럼 훌쩍이면서 애걸하고 있었다.

“여보, 문 좀 열어줘요. 추워 죽겠단 말예요. 여보, 문 좀 열어줘요. 추워 죽겠단 말예요…….”

어머니가 정말 와들와들 떨고 있는 게 희미한 복도 불을 죽이고 밝아오는 새벽빛 속에서 똑똑히 보였다. (중략)

도대체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있는 건 뭘까? 어머니가 그런 그녀의 의문에 대답이라도 하듯이 주먹으로 서재의 문을 쿵쿵 쳤다. 연지

25) 린다 맥도웰, 여성과공간연구회 옮김, 『젠더, 정체성, 장소-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2017, pp. 144-151.



네 집 여러 문 중에서 서재의 문이 얼마나 튼튼하고 엄숙하다는 것도 연지는 그때 처음 알았다. 검은 무광 락카를 칠한 드높은 문은 요지부동이었다. (중략) 서재엔 불이 켜져 있었다. 마당에 잎이 거의 다 떨어진 라일락 나무 그늘에서 서재가 흰히 들여다보였다. 아버진 깨어 있었다. 아버지도 술 두꺼운 책장을 넘기고 있었고, 책상 위의 커피포트에선 물이 끓고 있었다. (중략) 그녀는 창밖에서 뉘를 잃고 아버지를 들여다보았다. 창 안의 고독과 충만이 그녀의 가슴까지 넘쳐 들어오는 것 같았다. (『서있는 여자』, 81-85)

철민이 그것을 이해하든 말든 연지에게 있어서 이제 부부 관계란 당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중략) 연지는 출근하기 전에 현관에 서서 한동안 물끄러미 집 안을 바라보았다. 그 작은 임대 아파트를 그녀의 영역으로 확보해서, 아버지의 서재를 닦게 꾸미고 그 속에 오붓한 고독과 정진의 시간을 누리려던 꿈은 수포로 돌아갈 것 인가. 아냐 그럴 수는 없어. 그 권리만은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어. 연지는 혼자서 자문자답하고 망설였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는 어쨌 밤과 같이 고통스러운 밤을 수 없이 거쳐야 할 생각을 하면 지레 맥이 빠져버렸다. (『서있는 여자』, 428)

위 인용문에서 우리는 연지와 그녀의 아버지 하석태가 모두 사생활을 필요로 하는 인물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사생활이란 단순히 그/녀에게 사적 영역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모두로부터 자유로운 특수한 시공간이다. 요컨대 우리가 사생활을 갖는다는 것은 가장 가까운 공동체 구성원과도 공유하지 않는, 순수하게 개인적이며 고립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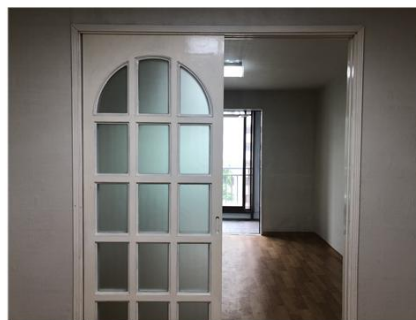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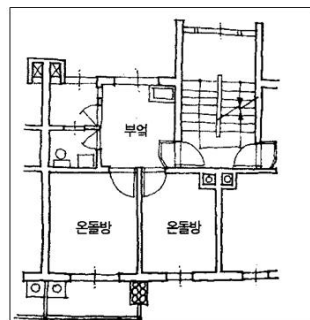
『서있는 여자』에서 사생활을 갖는다는 것은 가족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을 확보하는 일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가족들과도 공유하지 않는 ‘자기만의 방’을 갖는다는 것을 뜻한다. 위 인용문에서 하석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공간이다. 여기서 하석태는 자신의 서재에서 문을 잠그고 농성함으로써 아내 경숙의

침범을 막아내고 있다. 그는 나체로 “동물성의 소리”를 내며 성관계를 맺으려는 경숙의 접근을 실로 단호하게 막아내고 있다.

한편 연지는 아버지가 소유한 사생활의 세계에 매혹되었다. 연지는 불 켜진 “창안의 고독과 충만”에 눈을 뺏겼는데, 아버지의 “고고한 자기 세계를 지키기 위한 비정”은 “아름다운 것의 극단”처럼 인식됐다. 요컨대 아버지의 서재는 가족의 사적 영역 내부에 있으면서도 가족관계(성관계)로부터 독립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선토했던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연지는 아버지처럼 사생활의 공간을 확보할 수 없었다. 앞의 인용문들을 비교해보면, 우리는 연지가 하석태와는 다르게 배우자의 성적 요구를 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우선 남성과 여성 사이의 신체적 차이가 만들어낸 결과다. 연지는 “부부관계란 당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 철민은 신체적 위력을 활용하여 연지에게 성관계를 강제했다.

또한 연지가 하석태와 달리 공간적인 이점을 전혀 취할 수 없었다는 점은 문제적이다. 그녀에게는 걸어 잠글 문이 없고, 그리하여 농성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림 1〉 도곡주공아파트 2단지 10평형 평면도(좌),  
소형 아파트의 장지문(우)

〈그림 1〉의 원편 이미지는 1979년에 분양한 도곡주공아파트의 10평형 평면도<sup>26)</sup>이다. 이곳은 연지의 신혼집이었던 ‘11평 임대아파트’와 비슷한 평면 구조를 가진 공간이다. 이곳은 마치 ‘좁은 통’처럼 비좁은 데다, ‘장지문’으로 분할된 두 개의 방은 사실상 하나의 방이나 다름없었다. 이러한 구조는 연지에게 불리한 물리적 환경이었다. 연지는 철민의 친구들이 방문했을 때, 오직 화장실에서만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었다. 그녀에게는 타인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것이다. 한편 이러한 구조는 연지가 철민의 강압적인 성관계 요구를 막기 어려운 환경으로 기능했다. 두 방이 물리적으로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철민은 어렵지 않게 연지에게로 다가갈 수 있었다. 〈그림 1〉의 오른쪽 이미지는 ‘장지문’으로 분리된 실(室)의 사례다. 여기서 우리는 장지문이 각 방들을 확실히 단절시키거나, 혹은 보안을 제공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연지는 집에서 철민과 분리될 수 없었다. 이것은 하석태가 “검은 무광 락카를 칠한 드높은 문”으로 아내 경숙을 차단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다시 말해 연지는 아버지와 달리 다른 가족과 분리된 사생활의 공간을 소유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철민은 물리적·신체적 접촉을 통해 정서적 친밀성을 만들어내려는 전략을 쉽게 사용할 수 있었다.

여기까지 살펴보게 되면 연지의 문제가 장소의 공동체적 성격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다는 점이 명료해진다. 연지는 가족에게 재생산의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는 압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 따라서 연지의 문제는 집의 장소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다.

26) 대한주택공사 편, 『대한주택공사 주택단지총람』, 1978, 대한주택공사, p. 176; 전남일, 『한국 주거의 공간사』, 돌베개, 2010, p. 314에서 재인용.

장소성의 강화는 사실 철민이 시도하는 것이다. 그가 외도를 저질렀던 배경에는 연지가 독자적으로 임신중절을 시도함에 따라 생겨난 좌절과 분노가 존재한다. 철민은 여성에게 생리적이며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는 것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으며, 간절히 아이를 소망하고 있다. 그러나 연지에게 ‘가족계획’을 중단하고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학업을 포기하고 전업주부가 되는 길에 다름 아니다. 이때 집을 가족의 장소로 만든다는 것은, 근대적인 ‘정상가족’이 데올로기에 부합하는 공간을 생산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서있는 여자』의 결말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파트 이미지의 전환은 의미심장하다. 『서있는 여자』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연지가 철민과 이별하는 과정이 전개된다. 즉 연지는 가족제도를 벗어나 자립을 추구하는데, 이는 『서있는 여자』를 평등의 이념과 여성의 자립 가능성을 탐구하는 텍스트로 읽게 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sup>27)</sup> 여기서 핵심은 연지가 더 나은 가족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연지는 가족을 벗어난 삶을 향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아파트는 그러한 삶이 가능한 ‘장소 아닌 공간’으로 인식된다.

본래 연지는 아파트를 공동체적인 삶이 불가능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연지는 무더운 여름밤에 창문을 열었을 때, 자신의 사생활이 구경거리로서 노출된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이다.<sup>28)</sup> 그런데 일단 연지가 철민과 이혼하게 되자, 아파트가 수많

27) 신선별, 「박완서 장편소설 『서있는 여자』의 페미니즘 정치학의 의미」, 한국여성문학학회, 『여성문학연구』 제45집, 2018, pp. 37-71; 배상미, 「여성들의 노동과 계급 : 박완서의 『살아있는 날의 시작』과 『서있는 여자』를 중심으로」, 한국여성문학학회, 『여성문학연구』 제45집, 2018, pp. 73-117; 정미숙, 「박완서 소설 『서있는 여자』의 젠더지리학의 정체성 탐색」,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7권 1호, 2016, pp. 23-48.

28) “여름밤, 이 밀집한 아파트 단지에서 창문을 연 채 불을 켜는 건 마치 생활의 막을 올리고 남의 구경거리로 내놓는 것과 같았다.”(454)

은 타자들로 구성된 환경이라는 사실은,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인상을 환기하게 되었다.

찰각하는 금속성은 언제 들어도 가슴이 울렁거릴 만큼 좋았다. 그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유리창은 꼭 닫힌 채였지만 집안의 공기는 싱그럽고도 감미로웠다. 그녀는 그제 자유로움의 냄새라는 걸 알고 있었다. (중략) 그녀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늘 하던 버릇으로 창문을 활짝 열었다. 순간 소름이 끼치게 시린 밤공기가 밀려들어왔다. 그녀는 한동안 그 시린 바람에 몸을 맡겼다. 그녀가 환기하려는 건 밀폐된 방 공기와 함께 고독의 압박인지도 몰랐다. 그녀가 시린 공기에 씻긴 맑은 정신으로 멀고 가까운 아파트의 불빛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그녀의 강한 시선을 받고 문득 건물의 경직된 선이 생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속에서 숨쉬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간절한 유대감을 느꼈다.

그녀는 가볍게 몸서리를 치고 나서 창문을 닫았다. 따뜻한 유대감은 곧 편안한 졸음으로 이어졌다. (『서있는 여자』, 464)

위 인용문에서 연지는 아파트의 원자화(原子化)된 공간에서 위안을 받고 있다. 그녀는 아파트에 고립된 개인으로서 “고독의 압박”을 받고 있지만, 다른 아파트의 창문에서 새어나온 불빛에서 타인의 존재를 느끼고, 강렬한 유대감을 인식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아파트가 갑자기 긍정적인 공동체의 장소가 된 것이 아니며, 여전히 이웃으로부터 분리되고 고립된 공간으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연지는 아파트 문이 닫힐 때 나는 “찰각하는 금속성”을 들으며 “가슴이 울렁거릴 만큼 좋았다”고 말한다. 이 아무도 없이 텅 비어 있고, 창문이 꼭 닫혀 밀폐된 공간은, 역설적으로 ‘자유로운 냄새’를 풍겼던 것이다.

그러니 아파트는 타인과 연결되는 곳이 아니다. 거기는 내부에 반기는 이가 없으며, 철문과 창문 등으로 이웃과도 차단되는 곳이다. 그러나 막 철민과 이혼을 마무리한 연지는 “고독이 적어도 지금보다는 덜 감미로워져야 새로운 사랑을 꿈꾸기라도 할 것 같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연지가 이 아파트를 공동체의 중심으로서의 장소가 아니라, 타자와의 연결을 끊어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연지가 느끼는 유대감 역시 타자와의 거리감에 기초하는, 아주 역설적인 것이다. 연지는 분명 “멀고 가까운 불빛”에서, “그 속에서 숨쉬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간절한 유대감”을 느꼈다. 그러나 연지는 이들에게 다가가거나 말을 거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몸서리를 치고 나서 창문을 닫았다.” 연지가 바야흐로 빠져들고 있는 ‘편안한 줄음’은 이렇듯 타자로부터 분리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sup>29)</sup>

한편 연지가 유대감을 느끼는 사람들 역시 고독한 개인들이다. 연지가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는 본래 “독신자용으로 지은 아파트”의 단지에 속해 있다. 즉 연지와 철민 부부는 “형편이 여의치 못한 신혼부부들이 신혼살림”을 차린 경우에 속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지가 바라보고 있는 불 켜진 창문들 내부에는 1인 가구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sup>30)</sup>

29) 물론 이 장면은 연지가 가부장제적 굴레에서 벗어나 특히 여성적이며 공동체적인 연대를 획득하는 양상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배상미는 이 장면에서 연지가 “고독으로부터 벗어나 다시 사랑으로 다가갈 가능성”을 획득한다고 썼다.(배상미, 앞의 글, p. 101) 문화의 경우 연지의 ‘자기만의 방’이 아버지의 폐쇄적 공간과 다르게 “혼자만의 자족적인” 공간으로 축소되지 않고 “동료와 함께하는” 공간의 가능성을 획득함을 보여준다고 적극적으로 평가했다.(문화, 「“제2의 성”이라는 명제의 서사화-박완서의 1980년대 여성 해방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현대소설학회, 『현대소설연구』 제85집, 2022, p. 362)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연지가 획득하고 있는 안정감이 타자와의 연대보다는 고독으로부터 생성되는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30) “강남구의 어느 동은 아파트로만 이뤄진 곳. 이곳에 주공이 지은 7.5평짜리 소형아파트가 5백 가구 있다. 주민등록부상으로 보면 이 5백 가구 중 3분의 2 가량이 단독가구 가구주다. 동사무소에 따르면 이 단독가구 중 절반 이상이 가구주가 여자다.”(『아파트 밀집주거 시대 (9) 독신자들의 천국』, 『동아일보』 1982.12.21. 3면)

그렇다면 연지가 느끼는 연대감은 타자와 건강한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 전혀 아닌 것 같다. 여기서 연지는 모순적이게도, 앞으로 친밀한 관계가 될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사람들에게 유대감을 느끼고 있다. 요컨대 연지는 이혼 후 홀가분한 마음으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거나, 혹은 이웃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녀는 임대아파트에서 무수한 독신자 집단의 일부가 되고 있다.

1970년대와 80년대에 ‘독신자’들은 “서구사회와 같은 가족체제의 붕괴”를 암시하는 존재들로 담론화됐다. 이들은 모두 “전통적인 가족 형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존재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독신 인구의 증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인식됐으며, 특히 고등교육을 받은 신세대의 라이프스타일로 여겨졌다. 국가는 이러한 인구차원의 변화를 무시할 수 없었는데, 그리하여 새롭게 만들어지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 안에는 7~10평 미만의 독신자용 아파트가 한두 채씩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sup>31)</sup>

요컨대 “결혼에 무관심한 채 독신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무리 부정적으로 인식될지라도, 이러한 인구를 위한 공간은 계속해서 증설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가족의 재생산을 염두에 두지 않은 단자화된 공간은, “가정이라는 속박, 사슬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를 즐기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새로운 삶을 창조”<sup>32)</sup>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었다. 정상가족을 위한 표준적 단지에서 독신자는 일종의 이방인(alien)이 될 수 있다.<sup>33)</sup> 그러나 애초에 독신자를 위해 생산

31) 「시류에 따라 세태 따라 (12) 독신이 늘어난다」, 『경향신문』 1981.04.20., 9면.

32) 「시류에 따라 세태 따라 (12) 독신이 늘어난다」, 『경향신문』 1981.04.20., 9면.

33) 예를 들어 「무중」과 같은 소설은 가족 중심의 아파트에서 독신자 남성이 얼마나 소외될 수 있는지 보여준다.

된 환경은, 독신자의 이질성을 은폐할 수 있는 공간적 조건이 되었던 것이다.

이상의 해석에 따르면 연지는 아파트의 환경이 만들어내는 피상적인 삶의 형태를 극복하는 인물이 아니다. 혹은 아파트의 부정성을 반성하거나 새로운 대안적 삶의 양상을 제시하려는 의도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녀는 오히려 아파트의 비공동체적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포착하고, 그것을 자신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인물에 가깝다. 바로 여기서, 연지가 거주를 통해 공간의 의미를 변화시키는 인물이라는 점이 잘 드러난다. 그녀는 ‘지어진’ 공간을 거부하거나, 파괴하는 일 없이, 그곳의 경험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 3. 아파트의 상품성과 협상하기 :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의 경우

이 장에서는 박완서의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에서 아파트의 상품적 성격이 해방적으로 전유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더 자세히 말해, 이 소설에서 아파트의 천박하며 속물적인 성격이, 특히 여성인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긍정적 조건으로서 나타나고 있음을 논증하겠다.

우리에게 아파트는 단지 거주공간의 한 유형으로 의미가 국한되지 않는다. 아파트는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보여주는 것처럼 경제적 투자와 투기의 대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 주도의 ‘공간의 생산’이 야기한 결과다. 산업화시기 정부는 특히 단지화를 추구했다. 이것은 “짧은 기간의 압축 성장 과정에서 취약한 도시기반시설을 단기간에 보충하고 새롭게 등장한 중산층의 고급 취향에 맞



는 살림집을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단지 개발은 아파트의 상품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특히 대형아파트 단지는 표준화된 공간을 대량으로 공급했기 때문에, “화폐 교환가치를 유지하고 환금성이 좋다”는 특징을 보였다.<sup>34)</sup> 이러한 성격은 아파트를 둘러싼 투자 열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한편 표준적 상품으로서의 아파트는 핵가족의 주거공간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예컨대 1973년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은,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표준적인 주택의 조건으로 40㎡ 이상 85㎡ 이하의 면적을 제시했다.<sup>35)</sup> 여기서 후자는 평(平)으로 환산하면 25평형으로서, 현재 주택시장에서도 중심적인 모델이다. 당시 이러한 공간은 특히 “2자녀 이하의 핵가족”<sup>36)</sup>에 안성맞춤인 규모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산업화시대 한국사회가 급속도로 핵가족화하고 있었다는 통계적 사실과 공명한다.<sup>37)</sup> 요컨대 한국사회에서 아파트가 주거의 우세종(the dominant)이 된 것은, 핵가족이 한국 가족 형태의 우세종이 되었던 것과 상호관련적이다.

정리하자면 아파트는 국가 주도의 정책에 따라 변성한 상품이

34) 박철수·박인석, 『아파트와 바꾼 집』, 동녘, 2011, p. 32.

35)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대통령령 제6518호) 제19조 1항. 1973.2.26.  
([https://www.law.go.kr/법령/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06518,19730226;2023년6월20일접속\)](https://www.law.go.kr/법령/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06518,19730226;2023년6월20일접속)))

36) 「서민용 국민주택의 분양, 불임수술자에 우선」, 『동아일보』 1977.03.02., 1면.

37) “주택 문제가 질과 양에 있어서 다 함께 이처럼 날이 갈수록 심각성을 더해 가는 것은 반드시 주택공급이 줄고 있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중략) 가구수가 이처럼 급증하는 것은 인구증가와 아울러 핵가족 현상으로 가구당 인원이 75년의 5.0명에서 4.6명으로 줄고 있는 것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주택 문제 해결의 시각-80년 주택센서에 나타난 문제점-」, 『조선일보』 1981.11.08., 3면.)

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아파트에 산다는 것은 나와 공동체의 정체성의 원천이 되는 장소를 확보한다는 뜻이기 보다는, 국가 및 자본주의 경제에서 대량적으로 생산·보급된 욕망을 받아들인다는 뜻에 가까웠다.

한편으로 박완서의 소설은 이러한 양상을 분명히 비판적인 시각에서 재현했다. 예를 들어 「낙토의 아이들」과 같은 작품은, 아파트 재개발을 둘러싼 투기 열풍을 세세하게 추적하며, “1970년대부터 급속히 조성된 아파트 단지”들이 자본주의 사회의 “사적 소유권의 성채”에 다름 아니라는 점을 보여줬다.<sup>38)</sup> 그리고 「닭은 방」, 「포말의 집」, 「주말농장」 등의 작품은, 아파트에 사는 가정주부들이 “삶을 균질화하는(...) 로열 박스” 속에서 과시적이며 면서도 몰개성화한 라이프스타일을 영위하는 장면을 비판적으로 보여줬다.<sup>39)</sup>

그런데 박완서는 아파트의 상품성을 단순화하지 않으며, 그 모순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상세히 재현했다. 아파트의 상품성은 분명 건강한 삶의 속성으로 포착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박완서의 인물들에게 아파트가 전적으로 억압적인 환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여성인물들은 아파트의 상품성을 수용하면서, 그것을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의 주인공 차문경은 이혼 후 신흠 집인 18평 아파트를 획득했다. 이 아파트는 차문경에게 안녕한 삶의 장소가 되어주지 못했다. 차문경은 거기에서 사는 동안 이혼을 경험했고, 예기치 않은 임신이 하게 되었으며, 재혼에 실패했다. 그녀는 미혼모라는 낙인이 찍혀 교사라는 직업을 잃었고, 자신이 운영하던 놀이방에서는 유부남을 유혹한다는 추문에 휩싸이기도

38) 이철호, 「무소유의 시대-1970년대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아파트 표상과 그 의미」, 한림과학원, 『개념과 소통』 제27집, 2021, p. 145.

39) 김은하, 앞의 글, p. 53.

했다. 차문경이 아파트를 팔아치운 후 떠나려고 결심했던 것은, 이러한 부정적인 기억들로부터 물리적·상징적으로 결별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이었다.

“구태여 8학군에 집착하지 않는 차 선생 생각엔 나도 찬성이야. 그렇지만 아파트를 팔지는 마. 지금 그 아파트 전셋값이나 알아봐. 또 놀랄걸. 아마 집값의 3분의 2도 넘을테니까.”

“그것도 알고 있어.”

“근대 왜 팔아?”

“이 동네가 정떨어졌다고 했잖아.”

“혼자서 외아들 키우는 주제에 그렇게 감정적으로 굴면 어떡해? 전세 쥐도 얼마든지 딴 동네도 갈 수 있잖아. 두고 봐. 그 정떨어진 집이 해마다 황금알을 낳을 테니. 전셋값은 해마다 오르거든. 딴 동네 집값이나 전셋값의 상승률은 8학군보다 훨씬 둔하니까 잘하면 몇 번 올려받은 전셋값을 보태서 집을 또 한 채 장만할 수 있을 거야.”<sup>40)</sup>

위 인용문은 차문경이 이러저러한 역경 끝에 아파트를 팔아치우기로 결심하고, 친구인 임선생과 이사 문제를 논의하는 장면이다. 여기서 임선생은 차문경이 감정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임선생은 차문경의 아파트가 좋은 입지(8학군)를 가지고 있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장기적 수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단언했다. 과연 임선생의 예측은 틀리지 않아서, 차문경은 “아파트를 전세 놓은 돈으로 강북에 새로 개발된 주택단지의 다세대주택 중의 한 세대를 전세를 얻고도 목돈을 쥌 수가 있었다.” 이 여유 자금은 후에 차문경이 자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초 자본금이 되었다.

여기서 아파트가 긍정적인 장소감의 터전이 아니라는 점은 확

40) 박완서,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세계사, 2012, p. 124. 이후 면수만 표기.

실 하다. 그곳은 오히려 부정적인 감응(affect)을 초래하는 현장이다. 이때 차문경이 임선생의 조언을 받아들여 아파트를 팔지 않고 지대를 생산하는 부동산으로 전환하기로 결심한 것은, 현실원칙에 따라 자기배려를 포기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요컨대 차문경은 아이가 있는 어머니로서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조언에 따라, 장소혐오의 공간과 인연을 단절하는 것을 유보했던 것이다.

여기서 차문경은 분명 소시민적인 인물이다. 그녀는 아파트의 상품성에 저항하기보다는 적응했다. 차문경은 인본적이며 급진적인 정치적 주체이기보다는, 아파트의 상품성이 “이 사회에서 어떤 사람에게든 필요한 일인지도 모른다는 현실의 민낯”<sup>41)</sup>을 드러내는 인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현실의 민낯’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히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었다.<sup>42)</sup> 차문경이 집을 부동산으로 전환시켜 벌였던 사업들은, 그녀가 단순히 물신주의와 황금만능주의에 투신하거나, 거기에 예속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차문경은 경제적 생존을 위해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층위와 협상을 벌이는 적극적인 주체로 거듭나야 했다.<sup>43)</sup>

41) 송은영, 「중산층 되기, 부동산 투기, 사회적 공간의 위계 만들기」, 역사비평사, 『역사비평』 제139집, 2022, p. 91.

42) 오자은에 따르면 차문경은 ‘8학군’으로 대표되는 계급적 공간의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인물이다. 그러나 그녀는 한편으로 차별화가 만들어내는 “부당함과 강제적인 속성”을 가진 권력을 상대화하여 바라볼 수 있는 주체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오자은,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중산층의 정체성 형상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pp. 198-210을 참조.

43) 한경희는 차문경이 “지배 질서에 편승할 것인가 아니면 주변화되고 소외된 삶을 살 것인가와 같은 ‘모’ 아니면 ‘도’의 양극단의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을 만들어보려가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경희, 「박완서 작가 연구-대중·민중·여성문학장에서 ‘주부’의 발화 위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p. 258)

이러한 양상을 상세히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차문경이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어떠한 협상적 태도를 보였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내용을 앞당겨 말하자면, 차문경은 상호연관적인 세 가지 태도, 즉 실용적, 전략적, 위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했다.

ㄱ) 두 아이를 확보하게 된 그 여자는 어느 만큼 자신도 생기고 꼭 필요한 일이라는 보람도 가지게 되어 선전을 한번 해볼까 하는 용기가 생겼다. 먼저 그의 집 현관문에다 예쁜 그림으로 장식한 ‘할미새둥지’라는 포스터를 써붙였다. 같은 포스터를 상가 게시판이나 진입로의 전주, 각 동의 현관마다 있는 게시판 등에 붙였다. 외부에 붙이는 포스터에는 따로 돌 지나서부터 유치원 가기 전까지의 아기들을 엄마들이 원하는 시간에 맡겼다가 원하는 시간에 찾아갈 수 있다는 것과 전직 교사가 정성을 다해 돌본다는 걸 명시했다. 그 여자가 첫 사업에 ‘할미새 둥지’라는 좀 별난 이름을 붙인 건 아기들이나 엄마들이 할머니에 대해 가질 법한 그리움과 편안한 느낌을 이용해보자는 속셈도 있었다. 또 빼꾸기는 따로 둥지를 짓지 않고 할미새 둥지에다 알을 낳아놓으면 할미새가 체 알과 다름없이 품어 부화시킨다는 걸 엄마들이 연상해주어도 나쁠게 없다고 생각했다. 이름을 잘 지었는지 시기를 잘 탔는지 한 달에 두 명꼴은 되게 새로 맡아달라는 아기가 늘어나 반년도 안 돼서 그 여자의 둥지를 포화 상태가 되고 말았다. 소형 아파트 단지라 젊은 맞벌이 부부가 많다는 것도 잘 되는 이유 중의 하나였다.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117-118)

ㄴ) 임 선생 말대로 아파트를 전세 놓은 돈으로 강북에 새로 개발된 주택단지의 다세대주택 중의 한 세대를 전세로 얻고도 목돈을 쥌 수가 있었다. 처음부터 여러 세대가 살도록 설계된 주택이라 아파트처럼 독립되어 있었고 시설도 불편함이 없이 갖추어져 있었다. 가용 면적은 오히려 전에 살던 아파트보다 넓어서 숨통이 트였다. 마침 바로 길 건너엔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입주 중이었고 상가는 분양 신청 중이었다. (중략) 나물이나 밀반찬 등 아

파트에 사는 주부들이 하기 싫어하는 반찬을 맛깔스럽게 만들어 팔면 가장 밀천이 적게 들고도 회전이 빠른 장사가 되리라는 그 여자의 전망은 다행히 적중했다. (중략) 임 선생은 반찬 가게 이름을 ‘장모님 솜씨’라고 붙여주었을 뿐 아니라 출입문으로부터 ‘장모님 솜씨’라는 표지판이 가게를 인도하도록 머리를 써주었다.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125-127)

위 인용문들은 차문경이 미혼모로서 직업을 상실 후, 경제적 생존을 위해 벌이게 되는 두 가지 사업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차문경이 실용적인 태도의 주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언술은 우선 차문경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장면에서 차문경은 실리보다는 감정이 앞서는 여성으로 묘사되었다. 그녀는 성급하게 부동산을 팔아치우려 들었고, 뚜렷한 대책 없이 주변인의 부조를 통해 살아가는 경제적 무능력자로 나타났다. 그런데 차문경은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후, 아파트 단지에 ‘놀이방’을 만드느라 하면 반찬가게를 열었다. 이 사업들은 모두 번창했다. 인용문 ㄱ)에 따르면 차문경의 놀이방은 반년 간, 한 달에 두 명씩 새로 원생이 찾아올 만큼 성업하였다. 놀이방의 비용이 “한 달에 10만 원”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차문경의 월수입은 원생 10명 기준으로 약 100만 원 수준으로 추정할 수 있다. 1989년 현재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이 약 74만 원이었으며<sup>44)</sup>, 대표적인 고소득 직종인 증권사와 은행원의 대리급 초임이 각각 88만 원 선이라는 점<sup>45)</sup>을 생각할 때, 차문경의 소득은 상당한 수준이었다. 한편 반찬가게의 평균 수익은 작중에서 명확히 언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가게는 사용인을 한 명 두

44) 「도시 가구 소득 한 달 평균 744,400원」, 『동아일보』 1989.07.13.

45) 「金融 기관 평균 월급 短資 최고 保險 최저」, 『매일경제』 1989.06.06.

어야 할 정도로 성장했으며, 특히 “일요일 날은 예약을 받지 않으면 미쳐 해낼 수가 없을 정도로 번창했다.” 그리하여 차문경이 “먹고사는 문제에 비로소 자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볼 때, 상당한 수입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차문경이 순진하거나 이상적인 몽상가가 아니라, 사업적 통찰력을 활용하여 현실적인 사업을 벌일 수 있는 경제적 주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보다 심층적인 차원에서, 차문경의 실용성은 실리를 위하여 타자와 공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차문경의 사업은 사실 적대적인 환경을 활용하는 실천이었다. 이 소설에서 차문경은 “이른바 ‘정상 가족’을 구성하지 못했다는 스티그마를 가진 인물이다.”<sup>46)</sup> 즉 그녀를 괴롭히고 있는 이혼녀와 미혼모라는 이중의 낙인은 가부장제 사회의 도덕 속에서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 가부장제 도덕은 다만 심리적이며 사회적인 압박을 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차문경에게 물리적이며 경제적인 억압으로 작동했다. 즉 차문경이 중학교 가정교사라는 직업을 상실했던 것, 그리고 아파트 놀이방 사업을 그만둬야 했던 것은, 모두 그녀의 ‘이혼녀’이자 ‘미혼모’라는 사회적 위치 때문이었다. 그런데 차문경은 이러한 가부장제 사회에 저항하지 않고, 바로 그 젠더 체계의 경제에 참여했다. 차문경의 놀이방과 반찬가게는 모두 가부장제 사회에서 특히 여성에게 할당된 돌봄의 영역을 사업화한 사례이다.<sup>47)</sup> 즉 차문경은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성차별적인 체계를 재생산하거나 심지어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 적어도 그녀는 성차별적인 분업 체계 자체를 공격하거나, 그 틀을 넘어서기 위해 노력하지는 않았다.

46) 정우경,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에 나타난 ‘돌봄 주체화’ 양상』, 한국현대문학회, 『한국현대문학연구』 제63호, 2021, p. 85.

47) 정우경, 위의 글, pp. 89-100.

이러한 맥락에서 차문경이 보여주는 실용성은, 경제적 생존을 위하여 현실에 순응한 결과물로 읽힐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차문경의 실용주의는 이러한 수동적 적응을 초과하는 측면이 있다. 그녀는 가부장제적인 경제에 복속되고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경제의 허점을 분석하고 방침을 정하는 전략가에 가깝다.<sup>48)</sup>

차문경의 전략가적 면모는, 그녀가 주어진 환경의 취약점을 공략하는 능동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차문경의 놀이방은 “돌 지나서부터 유치원 가기 전까지의 아기들을 엄마들이 원하는 시간에 맡겼다가 원하는 시간에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강점으로 삼았다. 차문경이 본래 염두에 두었던 소비자층은 “일을 가진 엄마”였다. 그리고 상처 후 혼자 아이를 기르는 남성과 “맞벌이를 하면서(...) 친정 의존에서 벗어나 독립된 가정”을 이루려는 부부 등을 실제 소비자로 삼았다. 차문경은 자신의 동네가 “소형 아파트 단지라 젊은 맞벌이 부부”가 많고, 이에 따라 아이를 스스로 보육하기 어려운 가정이 많다는 점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차문경은 아파트 단지를 경제적 가능성으로 가득한 공간으로 발견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반찬가게에서도 잘 드러난다. 차문경은 “나물이나 밀반찬 등 아파트에 사는 주부들이 하기 싫어하는 반찬”을 대행하는 것을 사업 내용으로 삼았다. 그런데 이러한 외주화된 가사노동은 주로 도시의 직업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 1988년 현재 반찬가게는 주로 “직장일과 가사일에 쫓기는 취업주부나

48) 이한나는 차문경의 법정 투쟁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그녀가 일종의 원칙주의자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법과 체제에 존재하는 틈새를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주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이한나, 「1980년대 가족법 개정 투쟁과 박완서의 소설」,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연구논총』 제38권 4호, 2017, p. 28)



독신 직장여성들을 위한” 사업으로 인식됐다.<sup>49)</sup> 즉 반찬가게의 성업은 현대사회에서 “여성취업자 증가 및 취미, 사회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여성의 탈가정화와 관련된 현상이었다.<sup>50)</sup> 여기서도 차문경은 아파트 대단지가 전형적인 가부장제 성별분업이 잘 이행되지 않은 공간이라는 점을 간파하고, 그것을 공략하는 사업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차문경은 자신의 사업을 브랜딩 하는 과정에서도 전략적 측면을 보여준다. 차문경의 놀이방은 ‘할미새 둥지’라는 이름을, 반찬가게는 ‘장모님 솜씨’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명칭들은 전형적인 가부장제의 표상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긍정적 인식을 이끌어내려는 시도처럼 보인다. 여성 가족구성원의 돌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어휘들은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견고함을 보여주기보다는, 역설적으로 취약함을 드러내는 측면이 있다. ‘할미새’는 일차적으로는 아이나 주부들이 “할머니에 대해 가질 법한 그리움과 편안한 느낌”을 겨냥한 이름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놀이방의 아이들에게 할머니가 일상적인 가족이 아니라는 모순이 아로새겨져 있다. 이를테면 차문경이 최초로 탁아한 아이인 하나에게는 어머니와 친할머니, 외할머니가 모두 없다. 하나의 어머니와 친할머니는 이미 고인인 상태이며, 외할머니는 시골에 있다. 요컨대 하나는 할머니가 육아를 보조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문경에게 맡겨지고 있었다. 이는 아마 ‘할미새 둥지’의 아이들이 대체로 공유하는 조건이었을 것이다. 차문경이 놀이방을 차린 곳은 소형 아파트 단지 안이다. 차문경이 ‘열여덟평’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그곳은 부모와 아이들로 구성된 핵가족의 보금자리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할미

49) 「조미료 안 쓴 반찬가게 성업」, 『동아일보』 1988.02.26

50) 유희정, 「반찬전문점의 역할과 발전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p. 9.

새’는 현재 경험하기 어려운 옛 가족 형태의 환상을 암시하는 이름이었다.

이러한 양상은 차문경이 두 번째 차린 가게인 ‘장모님 솜씨’에서도 반복된다. 이 이름은 “주부들이 나물이나 밑반찬을 장만하는 건 아이들 때문이 아니라 대개 옛날 입맛을 못 잊어하는 남편 때문인데, 남편이 시어머니 솜씨를 그리워하는 건 또 못 참아주는 게 요즈음 젊은 주부들의 심보”이기 때문에 붙여졌다. 즉 이 가족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명칭은, 사실 가족 간 분리가 심화되고 있는 핵가족 시대의 경관을 반영하고 있었다.

요컨대 ‘할머니’와 ‘장모님’은 모두 가족친화적인 어휘이지만, 차문경은 그것을 가족 공동체의 연대와 결속이 점점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을 의식하며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차문경의 브랜딩 전략은 한편으로 가족적인 돌봄의 가치에 호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가부장제 가족이 물질적·상징적 대리보충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기초로 수립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아파트가 전통적인 가족 형태를 수용하기 어려운 거주공간이라는 점과 적극 관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차문경의 성격은 바로 위장성이다. 차문경의 실용적·전략적인 행위들은 모두 기만적인 위장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차문경은 자신의 사업을 브랜딩하는 과정에서 ‘할미새’와 ‘장모님’이라는 가족친화적인 이미지를 차용했다. 이러한 마케팅적인 수사(修辭)는, 차문경에게 미혼모이자 이혼녀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혀 있음을 생각하면, 그 허위성이 도드라진다. 즉 ‘할미새 둥지’나 ‘장모님 솜씨’의 브랜드 이미지는 그 대표자의 품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그야말로 마케팅을 위해 연출된 가짜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비진정성은 역설적인 방식으로 차문경의 역량으로 전환되고 있다. 차문경에게 진실되지 못한(insincere) 처세는, 지

배문화 속에서 생존하면서 거기에 완전히 동화(assimilation)되지 않기 위한 기술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차문경은 가부장제 경제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면서도, 바로 그 체제에 대하여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으며, 심지어는 부분적인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하여 차문경은 모호하면서도 위험한 내부 속의 타자로 자리매김한다.

차문경의 직업의식은 이러한 이중성을 잘 드러낸다. 차문경은 자신의 일에서 긍정적인 자기인식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그녀는 돌봄과 관련된 직업(가정교사, 놀이방, 반찬가게)을 유전하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적성이나 소명의식, 성취욕과는 무관한 선택이다. 그리하여 차문경의 일들은 단순한 ‘밥줄’에 불과하거나, 아니꼽게도 “체면이나 교양 도덕을 코에 걸어야 하는 직업”이며, 사회적 체면을 유지하기 어려운 일로 자각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차문경의 친구인 임선생과의 대조를 통해 더욱 극명하게 가시화된다. 임선생이 “나는 선생 노릇 좋아해. 그 일에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남들이 박봉이라고 하는 보수도 크고 대견하게 받아들였고.”라고 말하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는 것과 달리, 차문경은 자신의 일을 다만 ‘밥줄’이라고 잘라 말한다. 여기서 차문경은 스스로 진정성 없는 주체라는 점을 숨기지 않으며, 그리하여 자신의 모든 사업들이 다만 주어진 현실을 감내하는 일에 다름 아니라는 점을 드러낸다.

차문경은 심지어 가부장제에 대한 적대의식을 노출한다. 차문경에 따르면 그녀의 놀이방의 이름인 ‘할미새 둥지’는 사실 ‘빠꾸기’와 짝패인 어휘다. 여기서 차문경은 주부들을 알만 깐 다음 육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빠꾸기에, 자신은 돌봄을 대행하는 할미새에 비유하고 있다. 차문경은 이러한 비유를 “엄마들이 연상해주어도 나쁠 게 없다”고 말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악의가 숨겨져 있다. 요컨대 그녀는 가부장제를 대리보충하는 사업을

별이면서, 자신의 소비자들을 일종의 착취자로 표상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차문경의 비유법은 자신이 완전히 의식하지 않은 방식으로 작동하여, 그녀가 사실 가부장제 도덕체계에 대하여 위협적인 존재라는 점을 드러낼 수 있다. 빼꾸기의 탁란(托卵) 행위는 오랫동안 혼외정사의 비유로 쓰였다. 그러니 엄마들이 할미새라는 이름에서 빼꾸기의 존재를 연상한다는 것은, 차문경의 생각보다 훨씬 아슬아슬한 줄타기였다. 그것은 할미새가 사실은 빼꾸기의 위장일 수 있다는 데 생각이 미칠 수도 있는 위험(risk)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아파트의 가정주부들은 “사생아를 배서 쫓겨난 여자”가 남편을 유혹할 수 있다는 공포를 드러내었고, 이는 할미새 등지의 폐업으로 이어졌다.

지금까지 살펴본 차문경의 진정성 없는 태도는, 달렌 클라크 하인이 위장이라 불렀던 것의 연관 사례로 볼 수 있다. 하인에 따르면 위장이란 주변적인 위치의 소수자가 자기를 지탱하는데 필요한 공간과 자원을 확보하고자 할 때 효과적인 전략이다.<sup>51)</sup> 소수자는 지배문화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혹은 대등한 협상을 벌일 수 있는 권력을 갖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장이란 지배문화에 동화되지 않으면서도, 경제적·사회적 자존을 도모하는 수행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의 주인공 차문경은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협상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차문경은 가부장제 경제가 자신에게 억압적이며 적대적인 체제라는 점을 이해하고

51) 하인의 본래 논의에서 위장이란 특히 흑인 여성들이 성폭력적인 인종주의 및 가부장제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정념적이고 정숙한 태도를 전시하는 양상을 가리킨다. Darlene Clark Hine, “Rape and the Inner Lives of Black Women in the Middle West,” Preliminary Thoughts on the Culture of Dissemblance.” *Signs* 14, no. 4, 1989, pp. 912–920.

있지만, 실용적·전략적·위장적인 태도를 활용하여 자립의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이때 차문경은 정치적으로 저항적인 주체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나 결코 수동적인 피지배자로 축소되는 것도 아니다. 차문경은 주변 환경과의 갈등이나 마찰을 분명히 인지하면서, 그것을 조정하거나 활용하고, 심지어는 시치미를 떼고 속여 넘겼다. 여기서 차문경은 주위 환경과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주체로서 발견된다.

이 장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해야 할 점은, 차문경의 수행 속에서 아파트가 단순히 억압적인 환경으로만 축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차문경에게 아파트는 분명 긍정적인 장소가 아니다. 거기는 건강한 삶을 위한 경험의 거점이 아니라, 오히려 천박한 계급의식이 드러나는 부동산에 불과하다. 그러나 아파트가 핵가족을 위한 상품이라는 점은, 주체를 압박하는 조건이면서 동시에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역설적인 조건이기도 했다. 차문경은 아파트가 상품이자 시장이라는 사실을 활용하여, 그야말로 능동적으로 경제적인 자립을 수행할 수 있었다.

#### 4. 나가며

지금까지 『서있는 여자』와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박완서 문학의 아파트 표상을 점검하였다. 이에 따르면 박완서는 아파트의 복합적 측면을 주의 깊게 재현한 작가였다. 박완서 소설에서 아파트는 한편으로 현대성의 부정적 측면을 드러내는 공간으로 포착되었다. 그러나 아파트는 결코 난공불락의 콘크리트 요새는 아니었다. 박완서 소설의 주인공들은 아파트의 부정적 요소를 자신의 상황에 맞춰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장에서 중심으로 살펴본 것은 바로 아파트의 비장소성이었다. 아파트는 오랫동안 피상적이며 진정성 없는 라이프스타일의 원형으로 지적되어왔다. 요컨대 아파트는 공동체와의 연결, 사회적 소속감, 개성적이며 강렬한 경험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사람들을 고립시키고 사회적으로 소외시키는 환경으로 이해되어왔다. 『서있는 여자』에서도 아파트는 분명 그러한 부정성을 가진 공간이었다. 그러나 주인공 연지는 아파트의 비장소성을 성차별적인 장소성에 대항하는 요소로써 활용하였다. 여기서 아파트가 공동체적 삶이 어려운 거주공간이라는 점은, 정확히 그 공동체를 떠나고자 하는 여성의 자원으로 활용되었다.

3장에서 중심으로 살펴본 것은 바로 아파트의 상품성이다. 아파트는 오랫동안 진정한 가족의 터전이기보다는, 자본주의적인 상품이자 천박한 중산층 라이프스타일의 표상으로 인식되었다.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에서도 이러한 속성은 분명 비판적인 관점에서 포착되었다. 그러나 주인공 차문경은 아파트의 상품성을 활용하여 경제적·사회적으로 자립하는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여성인물들의 행위는 거주하기가 일종의 공간의 생산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연지와 차문경은 주어진 공간을 거부하거나 점령하지 않는다. 각각의 소설이 끝나는 시점에서, 아파트는 여전히 고립적이며 자본주의적인 공간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을 활용하는 양상은 정반대로 뒤집힌다. 아파트의 고립성은 개인적 사생활의 근거로, 상품성은 경제적 자립의 가능성으로 전환된다. 여기서 연지와 차문경은 일상생활의 실천을 통해 공간의 경험과 의미를 변화시키고 있다. 그녀들은 공간 자체의 형태와 기능을 바꾸는 일 없이, 그것을 전혀 다른 일상적 경험으로 탈바꿈시켰던 것이다.

박완서는 분명 아파트 디스토피아를 (재)생산하는 측면이 있다. 그녀의 글쓰기에서 아파트는 부정적이며, 한편으로는 성차별적인

환경으로서 즐기치게 재현된다. 그러나 박완서의 글쓰기의 효능은 이러한 디스토피아를 고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녀는 아파트 속에서 살아가며, 거기를 영리하게 활용하는 주체들을 재현한다. 박완서는 주어진 환경에 매몰되지 않으면서도 유토피아로 도피하지 않는, 바로 그러한 아파트의 주민들을 그렸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 박완서, 『서있는 여자』, 세계사, 2012.  
 박완서,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세계사, 2012.  
 「金融 기관 평균 월급 短資 최고 保險 최저」, 『매일경제』 1989.06.06.  
 「도시 가구 소득 한달 평균 744,400원」, 『동아일보』 1989.07.13.  
 「서민용 국민주택의 분양, 불임수술자에 우선」, 『동아일보』 1977.03.02.  
 「서류에 따라 세태 따라 (12) 독신이 늘어난다」, 『경향신문』 1981.04.20.  
 「아파트 밀집주거 시대 (9) 독신자들의 천국」, 『동아일보』 1982.12.21.  
 「조미료 안쓴 반찬가게 성업」, 『동아일보』 1988.02.26.  
 「주택 문제 해결의 시각-80년 주택센서스에 나타난 문제점-」, 『조선일보』, 1981.11.08.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한국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 2. 논문 및 단행본

- 김은하, 「아파트 공화국과 시기심의 민주주의: 박완서의 개발독재기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39집, 한국여성문학학회, 2016, pp. 39-66.  
 김정남, 「도시 주거공간의 비장소성과 단자적 의식의 문제」, 『한민족문화연구』 제65집, 한민족문화학회, 2019, pp. 191-224.

- 대한주택공사 편, 『대한주택공사 주택단지총람』, 대한주택공사, 1978.
- 르 코르뷔지에, 정성현 옮김, 『도시계획』, 동녘, 2007.
- 리처드 세넷, 김병화 옮김, 『짓기와 거주하기』, 김영사, 2020.
- 린다 맥도웰, 여성과공간연구회 옮김, 『젠더, 정체성, 장소-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2017.
- 문화, 「“제2의 성”이라는 명제의 서사화-박완서의 1980년대 여성 해방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현대소설학회, 『현대소설연구』 제85집, 2022, pp. 335-370.
- 박철수, 「대중소설에 나타난 아파트의 이미지 변화과정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21권1호, 대한건축학회, 2005, pp. 189-200.
- 박철수·박인석, 「아파트와 바꾼 집」, 동녘, 2011.
- 박해천, 『콘크리트 유토피아』, 자음과모음, 2011.
- 배상미, 「여성들의 노동과 계급 : 박완서의 『살아있는 날의 시작』과 『서있는 여자』를 중심으로」, 한국여성문학학회, 『여성문학연구』 제45집, 2018, pp. 73-117.
- 손종업, 「우리 소설 속에 나타난 아파트 공간의 계보학」, 중앙어문학회, 『어문론집』 제47집, 2011, pp. 243-264.
- 송명희·박영해, 「박완서의 자전적 근대 체험과 토포필리아-『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20집, 2003, pp. 43-70.
- 송은영, 「문밖의식으로 바라본 도시화-박완서 문학과 서울-」, 한국여성문학학회, 『여성문학연구』 제25집, 2011, pp. 111-138.
- 송은영, 「중산층 되기, 부동산 투기, 사회적 공간의 위계 만들기」, 역사비평사, 『역사비평』 제139집, 2022, pp. 77-104.
- 신선별, 「박완서 장편소설 『서있는 여자』의 페미니즘 정치학의 의미」, 한국여성문학학회, 『여성문학연구』 제45집, 2018, pp. 37-71.
- 에드워드 쥘프,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옮김,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 오자은,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중산층의 정체성 형상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유인혁, 「상실인가, 해방인가?-박완서 소설 『그 남자네 집』에 나타난 기억과 장소의 재구조화 양상」, 구보학회, 『구보학보』 제31집, 2022, pp. 445-483.
- 유희정, 「반찬전문점의 역할과 발전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이양숙, 「도시공간의 계토화와 불안의 정동-박완서의 아파트 소설을 중심으



- 로」, 국어국문학회, 『국어국문학』 제195집, 2021, pp. 295-326.
- 이인규, 『안녕, 둔촌 주공아파트1』, 마을에숨어, 2013.
- 이철호, 「무소유의 시대-1970년대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아파트 표상과 그 의미」, 한림과학원, 『개념과 소통』 제27집, 2021, pp. 137-169.
- 이평전, 「아파트 건축과 공간 질서의 생성과 파괴」,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17권 3호, 2013, pp. 129-151.
- 이평전, 「한국전쟁의 기억과 장소 연구-박완서 소설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회, 『한민족어문학』 제65집, 2013, pp. 869-895.
- 이한나, 「1980년대 가족법 개정 투쟁과 박완서의 소설」,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연구논총』 제38권 4호, 2017, pp. 13-41.
- 임준하, 「아파트 키즈의 아파트 단지에 대한 장소애착과 기억: 둔촌 주공아파트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전봉관, 「주거의 투기화, 투기의 여성화-1970~1980년대 한국 서사에 나타난 복부인의 형상화 양상 연구」, 대중서사학회, 『대중서사연구』 제25권 4호, 2019, pp. 321-359.
- 전남일, 『한국 주거의 공간사』, 돌베개, 2010.
- 정남, 「도시 주거공간의 비장소성과 단자적 의식의 문제」, 한민족문화학회, 『한민족문화연구』 제65집, 2019, pp. 191-224.
- 정미선, 「1970-80년대 주거의 문화사와 아파트-스케이프의 다중적 로컬리티」,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로컬리티 인문학』 제18집, 2017, pp. 101-146.
- 정미숙, 「박완서 소설 『서있는 여자』의 젠더지리학과 정체성 탐색」,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7권 1호, 2016, pp. 23-48.
- 정미숙, 「박완서 소설과 아파트 표상의 문학사회학」, 현대문학이론학회, 『현대문학이론연구』 제49호, 2012, pp. 307-332.
- 정우경,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에 나타난 ‘돌봄 주체화’ 양상」, 한국현대문학회, 『한국현대문학연구』 제63호, 2021, pp. 85-112.
- 정혜경, 「1970년대 박완서 장편소설에 나타난 ‘양옥집’ 표상-『휘청거리는 오후』와 『도시의 흥년』을 중심으로-」, 대중서사학회, 『대중서사연구』 제25호, 2011, pp. 71-91.
- 제인 제이콥스, 유강은 옮김,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 그린비, 2010.
- 프레드릭 제임슨, 임경규 옮김, 『포스트모더니즘, 혹은 후기자본주의 문화 논리』, 문학과지성사, 2022.
- 한경희, 「박완서 작가 연구-대중·민중·여성문학장에서 ‘주부’의 발화 위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 Darlene Clark Hine, “Rape and the Inner Lives of Black Women in the

42 인문연구 104호

Middle West,” Preliminary Thoughts on the Culture of Dissemblance,”  
*Signs* 14, no. 4, 1989.

(투고일: 2023. 8. 21 심사완료일: 2023. 9. 22 게재확정일: 2023. 9. 25)

유인혁  
소 속: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주 소: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4길 17  
전자우편: ficciones517@gmail.com

[Abstract]

Revisiting ‘Apartment Dystopia’ :  
The Liberating Appropriation of Representations of  
Apartments and the Imagination of Dwelling in Park  
Wan-Seo’s Novels

Yu, In-Hyeo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ally revisit on discourses of ‘apartment dystopia’ in Korea through Park Wan-seo’s novels. The term ‘apartment dystopia’ refers to the general perception of apartments as inhuman space. This critical discourse had the aspect of reinforcing the power of ‘the Apartment Republic’ rather than weakening it. This is because the powerful representation diminished the imagination of alternative lifestyle.

However, Park does not simply depict characters who are oppressed by apartments, but also appropriate those negative attributes. In *Standing Woman* the placelessness of apartment’s became beneficial conditions for women trying to escape a sexist community. Meanwhile, in *Are You Still Dreaming*, the apartment was a real estate rather than a place of authentic life. However, apartments served as an essential resource for people seeking economic independence. Here, the characters in Park’s novels do not just passively adapt to the given environment, but can be seen as subjects who change the meaning and function of living space through ‘dwelling’.

In summary, in Park’s novels, apartments were not just inhumane or oppressive spaces, but also spaces where negotiations with the majority took place. Here we can find the possibility of narrative overcoming it, not just reproducing apartment dystopia.

Key words: apartment dystopia, apartment, Park Wan-seo, *Standing Woman*, *Are You Still Dreaming*, dwelling, non-place, placelessness, place